

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

●연령 뛰어넘은 '자유로움' 가득, 吳圭原 시집「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」-끝없는 脫殼...싱싱한 젊은 담아(중앙일보 12월4일 문학평론가 진형준)

●중이가 달린다-선거책자 홍수에 문화계 울상...책, 공연포스터 못찍어 발만 동동/한달전 주문해도 제대로 안오고 지질마저 떨어져(동아일보 12월4일 宋煥彥기자)

●'대중적 전문성 갖춘 양서의 결정'-28회 한국출판문화상 수상도서들-내용·편집·인쇄·장정 등 크게 성장/경쟁 치열...좋은 책 탈락 아쉬워/다른 단계의 수상도서들은 제외(한국일보 12월5일 金龍善기자)

●컴퓨터 관련 서적이 많이 팔린다-교보문고 전체 대상의 25%차지...주고객도 학생에서 성인으로 바뀌어/대형서점들 모두 전문코너 마련(서울신문 12월5일 朴康文기자)

●39종의 기이한 篆書體 선보여-'漢字디자인' 출간/서예연구가 등에 중요자료(서울신문 12월5일)

●현대사의 진실 문학 통해 밝힌다-계간지「문예중앙」서 전집「오늘의 歷史, 오늘의 文學 30」발간/'민족고난 백년' 소개의 소설 엄선...진실과 허구 규명하는 해설 곁들여(중앙일보 12월5일)

●'87 베스트셀러 1위「홀로서기」, 2위「접시꽃 당신」...독자가 뽑은 출판가 10대뉴스「판금도서 해금」1위(경향신문 12월7일)

●'87 베스트셀러「홀로서기」시집 사상 '최고'(종로서적·교보문고 집계)-연말까지 전국서 50만권 팔릴듯/소설은 무협 퇴조...창작물 강제/인문서적전 김용옥씨가 5권 휩쓸어(중앙일보 12월7일 奇亨度기자)

●베스트셀러로 본 올해 인기 문인들(교보문고·종로서적 도서판매량 집계)-시인 서정운·도중환·김초혜·유안진, 소설가 이문열·이희수·강석경·조정래/일부 문학인에 편중...시가 강세(조선일보 12월8일 曹良旭기자)

●'87년 베스트셀러 서정시집이 강세-「홀로서기」「접시꽃 당신」1,2위...순수문학 선호경향 뚜렷(동아일보 12월8일 宋煥彥기자)

●소련 '철학教程'의 교묘한 변조 추적-申一澈의 「北韓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」(동아일보 12월8일 金河龍교수)

●잡지 창간·복간 움직임 활발-사회과학분야 주류 전성 예고/나남·한길사 등 출판계 서둘러...「사상계」「창작과 비평」도 등록 준비중(매일경제신문 12월8일)

●洪鍾仁선생 기념책자 발간-언론인 55명이 본 홍종인선생「大記者 洪博」출간(매일경제신문 12월8일)

●28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수상자 인터뷰/'독립운동사 정립에 도움됐으면'「長征」의 金俊樺박사-광복군 시절 체험수기형식 기록...“항일운동에 대한 높은 의식 필요”/“새로운 실학정신이 필요한 시대”「洪大容評傳」의 金泰俊교수-10년간 홍대용 관련서 3권 펴내...“관련 기록 드물어 연구에 어려움”(한국일보 12월8일 朴永喆·金龍善기자)

●'일제의 조선 통치논리 재조명'故 姜東鎭교수「日本言論界와 朝鮮」유작 출간-당시 日신문·잡지 체계적 첫 분석/日의 한반도 경영 불가피...인문서 합방 정당론 앞장(서울신문 12월8일)

●'87 베스트셀러 시집·소설류 부상(교보문고·종로서적 집계)-「홀로서기」「접시꽃 당신」1,2위/특정인 편중 심화, 仙道류 퇴조...證市활황 여파 증권서 상위권 석권(한국경제신문 12월9일 李成九기자)

●국내 독문학 연구 40년 총결산-독문학자 29명 합동저서 제1권「시·희곡」편과 제2권「소설」편 2권 발간/괴테부터 윤준까지 중요 작품 분석(조선일보 12월9일 曹良旭기자)

●'시로 고발한 우리시대의 폭력'양성우의「그대의 하늘길」등 개인·동인지집 쏟아져-광주사태에서 오늘까지의 회생 형상화/깨달음 요구하는 시인들의 절실한 외침(동아일보 12월9일 高美錫기자)

●문공부 문화·예술국 분리-문화국에 저작권 출판2과 신설/매체국엔 방송2과·광고과도 뒤(동아일보 12월9일)

●한국인 불어 저서 프랑스서 호평-丁奇洙교수의「한국과 서양-프랑스문화와 전파」/현재 일역중,

곧 국내에서도 출간될 예정(조선일보 12월10일 鄭重憲기자)

●'폭력에 바스르진 인간내면 성찰'-임철우 소설집「달빛따기」-같은 서정은 악의 모습을 가리고, 망가진 삶 속에 화해의 씨앗이(한국일보 12월10일 金薰기자)

●'동서문화의 만남' 책 잇단 출간,「東과 西, 어디서 만나는가」「서양의 논리, 동양의 마음」「동서문화교류사 연구」등-철학·문학·심리학 등 내용 다양/서구문명의 한계 동양적 극복(조선일보 12월10일 金泰翼기자)

●대형서점 신설 잇달아-청량리·강남·신촌·영등포 등 부도심에(매일경제신문 12월10일)

●'87시 기준문학의 금기체계 깨졌다-남북문인 재평가...노사분규 등 조명/운동시 실험시「자기반성」...변화 모색중/시집의 베스트셀러화「해설작업」필요(스포츠서울 12월10일 시인 홍신선)

●문고판 문학 새일굴로 정착-지질 향상, 책·활자 커져 독자에 친밀감/외국서·중편소설 등도 수록해 다양화...신인·중견·작고작가 폭넓게 수용(매일경제신문 12월10일)

●지방서점 대형화 바람-청주·목포·충무·서귀포 등 앞장/팩시밀리·컴퓨터 갖춰 현대화...문화예술 공간으로 한몫(조선일보 12월11일 曹良旭기자)

●올 출판량 크게 둔화(대한출판문화협회 집계)-도서 발간 1억4천454만권 집계/사회·기술과학 늘고 아동·역사서 감소/'저작권 조약 가입' 출협 10대뉴스 1위에(한국경제신문 12월11일 李成九기자)

●도서발행 신장률 크게 둔화...판매량 작년보다 2% 줄어-출판문화협회 조사(조선일보 12월11일)

●올 출판계 외화내빈-해금 등 정치열풍 불구 성장 주춤...발행부수 증가율 8.6%에 그쳐/평균 4,059부 발행...권당 4,500원/87출판뉴스 1위 '저작권제' 변화(한국일보 12월11일)

●시집, 올해의 베스트셀러 1,2위('87출판계 결산)-순수문학 작품에 독자 관심 쏠려/무명시인 서정운·도중환 일약 스타덤에...소설에선 이문열의 해, 20위 안에 4~5권(서울신문 12월11일 朴康文기자)

●격변정세 속 성장 둔화(출협 통계로 알아본 87 출판계 결산)-저작권법·금서해제 등 '핫이슈' 양산/

발행부수·종수 예년 증가율 밑돌아/선거영향 정치서적 붐...교보과 동도(중앙일보 12월11일)

●우리 문학 에스페란토어로 번역, 李在賢씨 해의 소개 위해「한국수필·소설·민담집」출간(서울신문 12월11일)

●시집「홀로서기」50만부 돌파-국내 사상최고/올 출판물 35,606종...분야별론 사회과학 늘고 아동 줄어(경향신문 12월11일)

●'죽음을 몰아내는 呪文' 이창동의「燒紙」-모든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진행중인 현실...실제의 죽음이 상징적 죽음과 대비(한국일보 12월11일 김치수교수)

●월남전 참전 문인들 베트남 재조명 활발-이상문·김태수씨 등 최근 장편, 시집 발표...박영한씨「머나먼 송마강」전면 개작 출간/우리 현실 되새겨...대리戰 허위 고발(스포츠서울 12월11일 윤홍식기자)

●'80년대 한국문학 상황 현장 증언' 김병익씨의「전망을 위한 성찰」-문학평론의 새로운 차원 개척에 기여(조선일보 12월11일 金柱演교수)

●'해학·기지로 엮은 한국학 에세이'-李勳鍾씨의「喝誰錄」-한국학 해부의 또다른 기능 제시(조선일보 12월11일 소설가 金周榮)

●'등록 취소 정간물 복간 허용'-문공부 밝혀...「月刊中央」·「創批」등 172개 대상(중앙일보 12월12일)

●말기 암환자 진료 체험 책으로-李旻植박사「사랑이야기」폐내...투병과 신앙 등 감동적 글 모아(한국일보 12월12일)

●'문화부 독립 사전 포석' 문공부, 15일 문화예술국 분리 개편-저작권과·광고과 신설 전문화/문예활동 자율성 높이는 계기...산하단체 협회 조사(조선일보 12월13일)

●출판종류·발행부수 증가세 주춤-올해 이례적 둔화...중판은 늘어/출판사 수 2,600, 책값 평균 4,500원/87출판계 10대뉴스 '저작권법 시행' 1위, 2위 '판금도서 해제'...「시집발행 붐」랭크(매일경제신문 12월15일)

●'국교 교과서 획일 벗고 다양화'를 한국교육학회 교육과정 학술대회-산수, 어렵고 쉬운 문제 고루 다뤄 지도해야/국어, 지나치게 권선징악에 치중 흥미 잃어/사회,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피상 소재 많아/자연, 실험결과만 중시 이론 설명

에는 약해(경향신문 12월15일 朴正鎭기자)

●70년대 이후 학생운동 장편소설화 작업 활기-金正煥, 金仁淑, 金南一 등...과거 단편적 언급서 벗어나/격변기 헤쳐가는 과정 구체적 묘사(동아일보 12월15일 高美錫기자)

●세밀 서점가 선물용 책 많이 나왔다-시·소설·수상집 등 가벼운 내용이 주류/가급적 신간 고르도록...연하장 등 넣어 보낼 수도(중앙일보 12월15일)

●'산업현장의 복지산업 실무 소개' 成圭鐸 편저「산업복지론」-미국에서 이룩된 경험과 발전 사례 소개(중앙일보 12월15일 崔正薰교수)

●'삶의 모순 탐구열기 팽창' '87시결산-申庚林·朴在森·高銀·吳圭原씨 등, 개인적 서정 단편적 인식...뛰어넘어 삶을 전체적 시각에서 조망...적극적이며 꺾이지 않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탐색하고 증언(한국일보 12월15일 吳生根교수)

●출판 '탈환자' 분위기로 침체 못벗어-사회불안·정치과열 독자 관심 냉각 부재...대형서점·군소업자 대립도 판매감퇴 요인/저작권 조약 가입·판금서 일부 해제는 활성화 초석(한국경제신문 12월16일 吳慶鎬교수)

●현실속박서 벗어난 '꿈의 여행'-권광욱의「꿈돌」무욕의 세계에서 인간상실 회복, 김인숙의「추모여수」인과응보 같은 삶의 아픔 그려, 민병삼의「종치는 집」인간의 순수한 생존본능 조명(스포츠서울 12월17일 박동규교수)

●한국계 蘇작가 아나톨리 김 작품집「푸른섬」등 국내 첫 출간-73년부터 창작활동, 소련 문단서 두각/한국의 혼과 러시아문학 접목...반체제 시인 율리 김과 나란히(경향신문 12월17일 孫東佑기자)

●「蔡萬植전집」5권 간행-전10권 기획「濁流」「레디 메이드人生」등 유작 모아(경향신문 12월17일)

●7년만에 복간 준비 한창-「文學과 社會」30대 평론가 주축 '문학사회학'에 중점...「文學과 知性」이름 바꿔 공연·시각예술도 폭넓게 수용/'창작과 비평' 참여·시민·민중·민족문화의 맥 유지...8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된 민중 논의 부각과 확산에 노력(중앙일보 12월19일)